

No.20170329-001

제목: 달과 태양의 바둑판

저자: 미야우치 유스케

페이지수: 258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1월 17일



<내용소개>

바둑판 장인&바둑기사 콤비가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미스터리 연작집

SF작가로서의 확실히 자리매김한 작가 '미야우치 유스케'가 처음으로 미스터리로 도전한 작품이다. 데뷔작 <반상의 밤>과 마찬가지로 '바둑'이 등장하지만, 장르가 달라진 만큼 전혀 다른 분위기와 매력을 지니고 있다.

요시이 리센, 나이 51세. 전직 바둑기사이며 바둑판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수많은 나무들 중 목재를 골라 완성하는 모든 단계를 손수 해낸다. 공장화 시대에 보기 드문, 그야말로 장인이다. 그러나 바둑판 자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고 있어 불안하다. 그는 은퇴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기술을 쏟아 부은 최후의 바둑판을 제작하려 한다. 그 꿈을 위해 최고의 비자나무를 찾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거의 산 속에서 생활 중이어서 <방랑의 바둑판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한편, 16세 소년 '신'은 장래가 촉망되는 프로바둑기사다. 리센이 바둑기사 시절 남긴 기보를 보고 그의 제자로 입문하고자 리센을 찾아다녔다. 지금은 최고의 목재를 구하려는 리센을 따라다니며 조수 역할을 하는 중이다. 어느 날, 그들은 잊혀진 바둑판 장인 '구로사와 쇼세츠'의 딸을 만나게 된다. 그녀 역시 바둑판 만드는 일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쓴 누명 그리고 탐탁지 않은 죽음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리센과 신이 그 진상을 파헤쳐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 <신록의 바둑판>의 내용이다. 이후 <불꽃의 바둑판>과 <개화를 서두르는 비자나무>에서는 리센과 위조 바둑판 제작자 '안자이 유우'의 재회 및 과거 악연이 드러나고, 대국 전날 실내에서 추락사한 바둑기사 사건을 다룬 <달과 태양의 바둑판>에서는 소식이 끊긴 리센을 대신해 신이 활약한다. 십 수년 전의 인연, 바둑계를 둘러싼 암투와 파벌 전쟁 등 깊은 어둠을 십대 소년이 어떻게 해결할지 독자들을 궁금하게 한다. 최종화인 <후카쿠사노 쇼쇼>에서는 바둑기사로서 기로에 서게 된 신의 앞날, 리센과 유우가 특별한 비자나무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여부가 흥미를 자아낸다. 바둑돌의 최고급 원료인 키조개가 멕시코 부근에서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리센이 현지를 방문하는 <산티아고의 바닷가>는 바둑이 이어준 신기한 인연을 그린 번외편이다.

절묘하게 단서를 찾아 추리하는 리센과 옆에서 활약하는 신을 보면 셜록과 왓슨이 떠오른다. 해

결 직전 “남은 것은, 바둑판에 선을 긋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하는 리센은 더더욱 탐정 같다.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나타나는 묘수들이 긴장하게 만든다라는 아야츠지 유키토의 추천사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독특한 소재로 재미 있게 풀어낸 미스터리 소설이다.

<목차소개>

신록의 바둑판 / 불꽃의 바둑판 / 개화를 서두르는 비자나무 / 달과 태양의 바둑판 / 후카쿠사노 쇼쇼 / 산티아고의 바닷가

<저자소개>

미야우치 유스케

1979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 제 1 문학부를 졸업하였다. 2010 년 <반상의 밤>으로 제 1 회 소겐 SF 단편상, 야마다 마사키 상을 받았다. 2012 년 작품집 《반상의 밤》으로 제 33 회 일본 SF 대상, 2013 년에는 제 6 회(아사다 아키코 기념) 나, 결국 Nobody 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에 《요하네스버그의 천사들》로 제 34 회 일본 SF 대상특별상을 받았다. 그 외 《미국 최후의 실험》, 《그녀가 에스퍼였던 무렵》, 《스페이스 금융도》 등의 작품이 있다.

No.20170329-002

제목: 최선의 거짓말, 최후의 한 마디

저자: 코노 유타카

페이지수: 325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2월 27일



<내용소개>

거짓말과 초능력, 치열한 심리전과 두뇌싸움이 엮이며 조용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미스터리

여러 인물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게임에 참가하고 경쟁하는 스토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기 쉽다. 하지만 코노 유타카의 《최선의 거짓말, 최후의 한 마디》는 생존게임의 잔혹성보다는 두뇌게임의 묘미를 택했다.

검색 엔진과 SNS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기업 '하루원'이 초능력을 연구한다는 소문이 퍼진다. 하루원은 이에 응하듯 "4월 1일에 연봉 8000만엔 조건으로 초능력자 한 명을 채용하겠다"고 공지한다. 제출된 이력서만 약 2만 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총 7명의 초능력자가 최종 시험을 치르게 된다. 3월 31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정해진 장소 범위 안에서 채용통지서를 손에 넣는 자가 하루원의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테스트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채용도 취소된다. 회사에서 지정한 특정 앱을 켜둔 상태로 스마트폰을 항상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채용통지서를 시험장소범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금지된다. 이들 참가자에게는 회사의 사전 평가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다. 중심인물인 '이치쿠라 신지'는 넘버7. 곧 대학교 4학년생이 된다. 그의 초능력은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것이다. 시험 시작 전에 우연히 숙소에서 마주친 넘버4,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히비노 루이'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

미래예지능력을 통해 행동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넘버1 '가토 진',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두 가지 물체를 맞바꿀 수 있는 넘버2 '호즈미 마사유키', 고작 만 12세의 나이에 초능력의 정체는 베일에 싸여 있는 넘버3 '나카야키 미코토', 시각정보를 지정한 대상에게 전송할 수 있는 넘버5 '다카하시 토키히코', 먼 곳에 있는 물건을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넘버6 '히지리사와 타쿠미'까지 7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그들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통해 숨기고 속이며 고군분투한다. 취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치쿠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게 될까? 독자가 안심할 때 즈음 놀라게 하는 반전이 제시된다.

이야기의 열쇠인 '최선의 거짓말'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상대가 믿는 동안 거짓말을 이어가야 한다. 셋째, 발각되어도 상대와 같이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설정이 주인공 이치쿠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리하며 읽어보도록 하자.

이번 소설은 기존작품들과 달리 정보량도 많고 인물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작가 고유의 깔끔한 문체와 전개 실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팬들과 새로운 독자 모두 재미 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 1화: 막이 오르면 계속 연기하라 18:00~
- 2화: 거짓말쟁이들은 밤의 거리를 달린다 19:00~
- 3화: 최선의 거짓말에 대해 20:00~
- 4화: 이야기는 무대 뒤에서 정해진다 21:00~
- 5화: 두 사람의 관계 22:00~
- 6화: 최후의 말에 이르기까지 23:00~

에필로그

<저자소개>

코노 유타카

소설가 및 게임디자이너. 1984년 도쿠시마 현에서 태어났다. 그룹SNE에 소속되어 있다. 2009년에 소설 《SAKURADA RESET CAT, GHOST and REVOLUTION SUNDAY》로 데뷔하였다. 작품으로는 <SAKURADA RESET>시리즈, 2015년 대학독서인대상을 받은 《사라져라, 군청》을 비롯한 <계단섬>시리즈가 있다.

No.20170329-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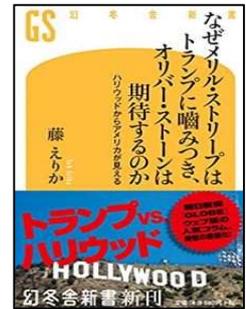
제목: 왜 메릴 스트립은 트럼프를 물어뜯고, 올리버 스톤은 기대할까?

저자: 토우 에리카

페이지수: 280

장르: 사회

출간일: 2017년 03월 30일



<내용소개>

할리우드를 통해 미국 사회, 세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본다

올해 2월 말 개최된 아카데미 시상식은 여러 모로 큰 화제가 되었다. 진행자는 첫마디부터 트럼프 덕분에 화이트 오스카라는 오명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풍자했으며, 공표한 것처럼 '유례가 없는 정치적 행사'로 전개되었다. 미국 문화예술계의 거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을 무렵부터 그의 공약에 불편한 심기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고, 그의 취임 이후 영화계 최대 공식 행사였던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공개적으로 성토했던 자리가 되었다.

이 책은 아사히 신문 <GLOBE> 웹 버전의 인기칼럼 내용을 정리하여 서적으로 펴낸 것이다. 화제가 된 영화의 감독, 배우, 제작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왜 '할리우드'를 주요 수단으로 택했을까? 최신 기술과 거대 자본을 집약해 히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 상업주의의 최전선, 미국의 가치관을 널리 퍼뜨리는 장치 등 할리우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하다. 하지만 동시대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옮겨놓은 것이 영화다. 미국이 안팎으로 품고 있는 생각을 살펴보기에 할리우드만큼 적절한 곳도 없다. 저자는 할리우드는 지금까지 미국 현 정부에 대체로 협조적이었지만 트럼프 정권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메릴 스트립을 비롯한 유명 배우와 제작자, 관계자들은 연이어 반 트럼프 성향을 공개했다. 반면 올리버 스톤 감독처럼 트럼프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힌 영화인도 있다.

1부 <할리우드에서 본 미국>에서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배척 받았던 시나리오 작가 트럼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출연을 결정하는 배우 맷 데이먼이 '제이슨 본' 시리즈를 통해 묻는 것 등 할리우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국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한다. 2부 <인종·성·자금의 현실>에서는 영화를 진짜처럼 꾸며내는 영화음악의 비밀, 흑인 중심 작품은 자금 조달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 등을 다룬다. 3부 <스크린에 반영된 격동의 세계>에서는 대상 범위를 확장시킨다. 유럽의 원래 주민들과 그곳에 유입된 난민, 브라질 상파울루 빈민가의 현실 등 영화 속에 옮겨진 세계 곳곳의 분열과 깊은 갈등을 들여다본다.

영화계라는 흥미로운 산업과 콘텐츠를 통해, 지루하지 않게 세계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직접 인터뷰에 나섰던 저자의 시점과 경험을 통해, 유명 작품과 영화인에 전하려는 생각은 물론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다.

<목차소개>

제 1부: 할리우드에서 본 미국

(강함은 문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침묵-사일런스] / 탄압당해도 쓸 말은 모두 같겨 쓴 기골 [트럼보, 할리우드에서 가장 미움받은 인물] / 사실을 보도하는 고통과 책임 [뉴스의 진상] 등)

제 2부: 인종·성·자금의 현실

(스카우트를 멈춘 디즈니의 히로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시간여행] / 영화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마법 [세계적인 지휘자가 말하는 영화음악] / 대 히트 작품을 뒷받침한 것은 네덜란드의 은행가 [할리우드가 복종한 은행] 등)

제 3부: 스크린에 반영된 격동의 세계

(역이지 않는 두 개의 세계 [바다는 불타고 있다 - 이탈리아 최남단의 작은 섬] / 우등생 독일이 지닌 또 하나의 얼굴 [돌아온 히틀러] / 터키의 적이라고 혹평 받은 고발 영화 [맨발의 계절] 등)

<저자소개>

토우 에리카

1970년생. 1993년 도시샤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사히 신문에 입사하였다. 경제부와 국제보도부 등을 거쳐 2011~14년에 LA지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대통령 선거부터 IT, 영화계 등 폭넓은 분야의 사건을 취재하였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4년 연속 현지에서 취재했으며 영화를 좋아하여 각본에 대해 배운 적도 있다. 현재 아사히 신문 <GLOBE>기자이며, 트위터 공식 계정(@erika_asahi)을 통해 독자와의 소통에도 신경 쓰고 있다.

No.20170329-004

제목: 멋진 어른? 멋지지 않은 어른?

저자: 하쿠호도 새로운 어른 문화 연구소

페이지수: 266

장르: 사회

출간일: 2017년 03월 16일



<내용소개>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에 새롭게 등장한 '멋진 어른' 및 미래사회에 대한 분석과 제언

고령화,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5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에 해당되는 인구 수가 늘어나고, 그 안은 다시 여러 계층으로 나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대중의 소비패턴에 신경 쓰는 기업들이 제일 주목하는 이들은 '액티브 시니어'로,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이전 노년층과 달리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를 지칭한다. 삶을 마주하는 여유로움과 당당한 자세는 젊은 세대들이 멋지게 여기며 동경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새로운 어른', '멋진 어른'의 등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대형 광고회사 하쿠호도는 시장 영향력이 큰 차별화된 시니어, 즉 자신들은 이전의 어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어른'을 대상으로 리서치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 타이틀에서는 45~69세의 남성층과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의식 및 실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닥고 싶고 교류하고 싶은 '멋진 어른'의 특징과 미래를 소개한다. 현재 40대 후반 즈음의 독자들은 젊은 세대에게 멋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본문을 살펴보자면 1장에서는 새로운 어른이 등장한 사회상을 설명한 다음, 2장에서는 젊은 세대와 마주하는 식사나 사내 업무 상황에서 멋진 어른으로 인정받는 법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무대인 SNS를 배경으로, 효과적인 교류 기술을 다룬다. 4장에서는 취미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동년배 내에서 멋진 어른-멋지지 않은 어른을 나누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또한 5장에서는 20~30대 직장 여성들의 시각에서 젊은 세대와 그 위 세대의 업무 가치관 및 생활 감각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다. 부하들의 선망과 호감을 얻는 상사의 모습이 드러난다. 6장은 시니어 세대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활동단체 두 곳의 책임자를 취재한 리포트다. 새로운 어른이 지닌 생활 스타일의 특징과 그들이 사회에 끼칠 영향력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후반부인 7장과 8장에서는 다양한 리서치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며 일본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한편, 새로운 어른들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언한다.

젊은 세대와 긍정적으로 교류하는 멋진 어른이 되는 지침서, 새로운 사회적 집단의 생활 스타일을 탐구서, 그리고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제언서. 세 가지 목적과 역할을 지닌 책이다. 점점 늘어나는 시니어 인구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심이자 동력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새로운 어른의 출현
- 제 2장: 매력적인 어른의 청년층 교류 기술
- 제 3장: 매력적인 어른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 제 4장: 레저와 취미로 보는 인기 있는 어른의 이상과 현실
- 제 5장: 매력적인 상사의 조건
- 제 6장: 매력적인 어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움직임
- 제 7장: 매력적인 어른이 있는 일본으로 - 7개의 제언 -
- 제 8장: 매력적인 어른의 과거·현재·미래와 꽃피는 비즈니스

<저자소개>

하쿠호도 새로운 어른 문화 연구소

광고회사 하쿠호도가 시니어시장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문으로서 2011 년에 설립하였다. 기존의 시니어를 묘사하던 「인생의 내리막길」 가치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자녀가 독립하며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은 지금부터」 가치관이 주류가 되어가는 시대에, 50 대~60 대를 시니어가 아닌 「새로운 어른」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의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고 마케팅을 통해 시장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며,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회 엔진"이 되기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No.20170329-005

제목: 프랑스 여성은 80세에도 연애를 한다: 내가 가진 매력 그대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힌트

저자: 노구치 마사코

페이지수: 253

장르: 라이프스타일

출간일: 2017년 01월 25일



<내용소개>

프랑스의 여성들처럼, 본연의 매력을 그대로 살리며 나이 드는 삶의 비결

경제적인 문제나 집안사정으로 등 여러 제약들에 부딪혀 '나답게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낯선 곳에 가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없고 암묵적인 압박 요소들이 모두 제거된 곳에 있노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여유가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지칠 때마다 타인의 여행담을 통해서라도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이 책은 프랑스에 다녀온 친구가 "자기가 만난 멋진 프랑스 여성들"에 대해 들려주는 것 같다. 프랑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고 친근하게 전함으로써 이제껏 파묻혀 있던 현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생각을 전환하게끔 이끌어주려는 쪽이다.

저자는 프랑스인과 결혼해 약 20년을 현지에서 살며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해 왔다. 일본과 프랑스의 차이점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그녀가 그 동안 만난 55인의 프랑스인을 통하여 느낀 바를 솔직하게 적은 것이 이 책이다. 엄마&아내의 역할에 충실한 나머지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버리지 말 것, 항상 아름답게 고마움을 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 스스로 비하하는 습관 버리기 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매력적인 인물이 되는 기술이다. 혼자 식사를 할 때도 제대로 차려 먹기, 내키지 않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하기, 요청하지도 않은 타인의 조언에 휘둘리지 않기, 무엇이든 터놓을 수 있는 친구라는 환상 갖지 않기 등 고독함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알려준다. 프랑스의 연애 스타일,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이야기도 흥미롭다. 한편, 사회적 기준에 딱 들어맞는 미인이 아니어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등을 곧게 편 자세, 브랜드와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 주말엔 붉은 매니큐어로 기분 전환하기 등 자기만의 매력을 살리며 미인의 아우라를 장착하는 비결을 소개한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대접하거나 자신에게 꽃을 선물하기, 주말은 한적한 곳에서 보내기 등 프랑스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더라도 프랑스식 생활을 즐기는 팁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프랑스 여성들의 사고방식을 더 좋은 것이라고 우열을 매길 수는 없으며 그런 목적으로 쓰인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어떤 틀에 얽매어 있던 것은 아닌지, 타인의 시선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힘들어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목차소개>

- 제 1장: 나이를 먹을수록 매력이 더해지는 기술
- 제 2장: 아름다운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 제 3장: 사랑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 제 4장: 미인의 아우라는 스스로 만든다
- 제 5장: 프랑스식 생활을 즐기는 기술

<저자소개>

노구치 마사코

도쿄에서 태어났다. 부동산기획회사 근무를 거쳐 뉴욕, 파리에서 유학하였다. 현지에서 패션, 미용, 여행 등에 관한 기사를 잡지에 기고하였다. 귀국 후에는 여성잡지기자로 일하는 한편 건강과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위한 Relaxation salon 을 맡았다. 그 후,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인 남편과 결혼하여 그 곳에서 약 20 년을 거주했다. 현재는 파리와 일본을 오가며 지내고 있고 여성의 삶을 테마로 저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이상적인 남성에게 선택 받는 파리 스타일, 연애 레슨』등이 있다.

No.20170329-006

제목: 대단한 PDCA

저자: 미키 타케노부

페이지수: 240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2월 10일



<내용소개>

발매 1달 반 만에 5만부 돌파! 업무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고속PDCA'

이 책의 저자인 '미키 타케노부'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수행비서를 거쳐 프로젝트 매니저로 변신, 회사의 명운이 걸린 유수의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시킨 인물이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는 손정의 회장을 바로 옆에서 철저히 분석했다. PDCA의 본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저자는 기존의 PDCA를 변형시킨 '고속PDCA'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본인의 탄탄한 성공 기반이 되었으며 소프트뱅크 사내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고속PDCA란, <PLAN(계획) → DO(실행) → CHECK(검증) → ACTION(조치)>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돌려보는 것이다. 항상 일의 결과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개선을 지향하게 되며, 숫자를 근거 삼아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PDCA는 4단계지만, 고속PDCA는 중간 단계인 D와 C 과정을 두 번씩 반복하여 총 8단계를 거친다. 계획 [P] 단계에서는 자기보다 앞선 상대를 기준으로 세운 '큰 목표'와 매일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목표' 두 가지를 설정한다. 처음부터 세세하고 정확한 값을 정하는데 힘을 쏟기 보다는, 대략적인 값을 세우고 시작부터 한 다음 구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편이 좋다. 실행 [D] 단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기한을 정하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제히 시도해보고,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 한 가지만 실행해본다. 일정 기간 동안 성과가 없다면 실패로 판단하고 중지해야 한다. 검증 [C] 단계에서는 결과를 수치로 정량화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인과를 분석하는 '다변량해석'과 프로세스를 시각화하는 'T자 감정'을 이용해 정확성을 높인다. 조치 [A] 단계는 제일 좋은 방법만을 다듬어 나가는 법칙에 대해 설명한다. 언제나 YES를 끌어내는 이론, 시각화의 중요성도 다룬다. 각 단계마다 소프트뱅크의 실제 사용 사례를 풍부하게 보여주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협력을 얻어내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이 계속 쌓여서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에 걸맞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등, 문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제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고전적인 프레

임워크 PDCA를 통해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기본기가 탄탄한 고속PDCA를 익혀 업무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책이다.

<목차소개>

서 장: 왜 고속PDCA라면 일을 초 스피드로 처리할 수 있을까?

제 1장: 고속PDCA를 움직이는 8 Step

제 2장: 월간, 주간이 아닌 「매일」의 목표를 설정하는 고속PDCA의 「P」

제 3장: 하나 하나가 아닌, 「동시에 모든 수단」을 시험해보는 고속PDCA의 「D」

제 4장: 결과를 「수학」으로 엄밀히 검증하는 고속PDCA의 「C」

제 5장: 「가장 좋은 방법」만을 연마하는 고속PDCA의 「A」

제 6장: 「사람의 힘」을 빌리면 더 빨라진다

<저자소개>

미키 타케노부

1972년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미쓰비시 상사(주)를 거쳐 소프트뱅크(주)에 입사하였다. 소프트뱅크 사장실장으로 취임, 손정의 사장 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조인트 벤처와 나스닥 재팬, 일본채권신용은행(현: 아오조라은행) 매수, 소프트뱅크의 통신업계 진입 기반이 된 브로드밴드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활약하였다. 또, 일련의 사업을 통해 「고속PDCA」의 토대를 구축했다. 2006년 독립하여 학습서비스 제공 기업 「Tryon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1년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는 One Year English 프로그램 <TORAIZ>를 운영하며 주목을 모았다.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 한편, 도쿄증권 1부와 마더즈 공개기업 및 미공개기업의 사외이사·감독 역할 등을 다수 겸임하였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자료작성, 영어활용 등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다수의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하면서도 소프트뱅크 시절 같고 닷은 「고속PDCA」를 구사하여 현재는 사원들과 함께 거의 매일 「야근 제로」를 실현 중이다. 높은 생산성과 압도적인 일 처리 속도로, 비즈니스와 사생활을 병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저서로는 『왜 저 사람은 중학교 수준 영어로도 세계 TOP을 설득할 수 있을까 - 손정의의 Yes를 받아내는 기술』, 『해외경험이 없어도, 일이 바빠도「영어는 1년」으로 마스터 할 수 있다』 『세계 TOP을 10초 만에 이해시키는 자료의 법칙』 등 다수가 있다.

No.20170329-007

제목: 수학 커뮤니케이션 입문: 상대방을 움직이는 숫자 커뮤니케이션

저자: 후카사와 신타로

페이지수: 248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3월 30일



<내용소개>

숫자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을 배워보자

타인에게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그 내용을 뒷받침해줄 설문조사나 현황조사 또는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사회의 상식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리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단숨에 유리한 분위기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취급하고 자료 형식으로 가공하여 전달하는 능력은 필수다. 문과 전공이든 이과 전공이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설득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익혀야 한다.

이 책의 저자인 '후카사와 신타로'는 비즈니스에서 숫자 및 수학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비즈니스 수학>을 제창했다. 숫자 활용능력이 설득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키는 것이 목표다. 학교수업에서 배웠던 수식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본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정량화' 즉 어떤 사실을 숫자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항상 정확한 계산 값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시 답해줘야 할 때에는 재빠르게 근삿값을 뽑아내야 한다. 덧붙여 우선순위를 수학적으로 결정하기, 필요한 값을 오류 없이 도출하기 등을 다룬다. 이를 위해 평소에 수학적 센스를 갈고 닦을 수 있는 비결도 언급한다. 2장에서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할 때에 그래프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래프 만들기의 완전 기초와 절대 해서는 안 될 주의사항,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프에 작은 한 수를 더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 3장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논리적인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정의를 설명하며 혼동 가능성을 줄이고 3단 논법 따라가기, 반드시 지켜줘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등 듣는 이가 저절로 수긍하게 만들 흐름을 만들어간다. 마지막 4장은 숫자에 기반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화법을 전수한다.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추상적 요소와 구체적 요소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듣는 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를 배분하는 팁도 함께 써보도록 하자.

숫자에 자신감이 없다고 피하기만 한다면 발전을 꾀할 수 없다. 직장인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수학적 기초 사고를 쌓고 응용 노하우를 익힘으로써, 상대방 설득은 물론 본인도 한결 편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마치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숫자 만드는 방법

제 2장: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

제 3장: 논리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

제 4장: 숫자를 이용하는 화법

<저자소개>

후카사와 신타로

비즈니스 수학 전문가, 교육 컨설턴트. BM컨설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타마대학 비상근 강사를 맡고 있다. 일본수학검정협회 <비즈니스 수학 검정> 일본 국내 최초의 1급 AAA 인정자다. 입시 학원 강사 등을 거쳐, 직장인의 사고력과 수학 능력을 높여줄 비즈니스 수학을 제창하며 연구강사로 독립하였고 인재육성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기업과 대학 비즈니스 스쿨 등에서 5000명 이상을 지도하였다. 저서로는 《99%의 사람은 모르는 숫자에 강해지는 비법 30》, 《수학여자 토모카가 가르쳐준다 - 일에서 숫자를 쓴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등이 있다.

No.20170329-008

제목: 어른을 위한 리노베이션: 50대 이상에게 어울리는 리모델링 제안+

저자: 마루 요코 외(편집부)

페이지수: 119

장르: 인테리어

출간일: 2017년 02월 22일



<내용소개>

50대 이상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 살고 싶은 집을 실현함으로써 남은 인생까지 변화시킨다

사회의 격동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고 '어른'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연륜을 갖춘 50~60대. 직장을 은퇴했거나 은퇴준비를 하고 있고 자녀들도 취업과 혼인으로 떠나가는 나이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자기 삶을 제쳐두고 살아왔다면, 갑자기 생겨난 여유를 쓸쓸함과 불안에 빠뜨리기 쉽다. 이제부터는 본인이 정말 원하던 것을 실현해나가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

《어른을 위한 리노베이션》은 살고 있는 공간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한다. 맨션 리모델링 전문잡지인 《relife+》의 별책부록으로, 50대 이상에게 어울리는 주택 리노베이션에 특화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자기의 취향을 고급스럽게 드러내 줄 참고 사례들을 선정하여 소개한다.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단독주택'과 방 배치 만으로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맨션(한국의 아파트)'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오래된 집부터 요즘 트렌드인 공장풍 분위기, 오가닉 소재를 활용한 집 등 다양한 컨셉트가 수록되어있다. 주택 리모델링의 기초지식과 더불어 각 집의 면적, 리노베이션 전과 후의 변화, 공사 비용 등 실용적인 정보도 빠짐없이 제공한다. 리모델링을 고려 중인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어른의 스타일

Part 1. 단독주택 편 -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단독주택 리노베이션

(RC구조와 옛 느낌을 매치. 확고한 성향이 빛나는 집 / 동네 공장 이미지를 가져와 요리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 그 자체로 '주얼리' 같은,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은 집 등)

설비기기특집 - 고급설비기기 28 item! & 사용해보고 싶은 설비 소품

Part 2. 맨션 편 - 방 배치 변경과 인테리어로 놀라운 변신!

(조망과 푸르름을 마음껏 즐기면서 브루클린 스타일로 개조 / 세세한 곳까지 취향이 담겨있는 우아하고 시크한 인테리어 / 오픈 LDK로 조망을 즐기도록 배수시설과 침실은 수납식으로 중앙에 등)

< 본문 이미지 >

この家の家史

2012年 息子と住むための今の家を中古で購入
2014年 リノベーションを行う際にも、約2年間の居住の予定あり
2015年 キitchen+ワークスペースに設計を依頼
2016年 約1年の設計・施工期間を経て完成!

「リノベーション」は、既存の建物を解体して、壊れた部分や古い部分を取り壊し、新しい部分や新しい部分を取り付け、新しい建物にするという行為です。リノベーションは、既存の建物の価値を高め、新しい建物にするという行為です。リノベーションは、既存の建物の価値を高め、新しい建物にするという行為です。

029 ©Shohei Yamamoto

リノベーション面積
134.10㎡

工事費
2800万円

【東京・江戸川区】築6年の家。木造4階 長男26歳
まるごと“ジュエリー”な、こよなく居心地のいい家

ジュエリーデザイナーが、自宅兼工房も兼ねて実現。こだわりを徹底的に追求し、完成したジュエリーショップ空間は“ジュエリー”な雰囲気が溢れる空間だ。

030-キイチワークスペース+美観設計長寿設計デザイン研究室
030-030-0300 030-0300-0300

DETACHED HOUSE 03
SHABBY CHIC HOUSE

029

リノベーション面積
101.03㎡

工事費
2300万円

027 ©Shohei Yamamoto

【東京・西宮区】築6年の家。木造4階 長男26歳
眺望と緑を存分に楽しみながらブルックリンスタイルに改修

眺望と緑を存分に楽しみながらブルックリンスタイルに改修

ブルックリンスタイルに改修

01 NYカフェスタイル

027

この家の家史

2006年 中古マンションを購入するも3日後売却
売却後デザイン・リノベーションを依頼
2016年 家を売却して、夫が原資の支援に不足を補った。売却後の生活費を計画
2016年 最終的な売却にリノベーション

027 ©Shohei Yamamoto

【東京・西宮区】築6年の家。木造4階 長男26歳
眺望と緑を存分に楽しみながらブルックリンスタイルに改修

ブルックリンスタイルに改修

01 NYカフェスタイル

027

No.20170329-009

제목: 중학교 첫 번째 참고서

저자: 후나토 요시아키(글), usi(그림)

페이지수: 196

장르: 교육

출간일: 2014년 10월 03일



<내용소개>

공부에 자신이 없는 중학생 소년이 '공부의 신'을 만나며 공부와 시험에 자신감을 갖게 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중학생이 된다. 시간 차는 거의 없지만 아이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학업 환경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복장부터 교칙으로 정해진 교복을 입어야 하고, 좀 더 일찍 등교해 늦게 하교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도 시험과 학원수업 등으로 팍팍하게 짜인 일과를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중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기말 시험은 초등학교 시절보다 더 본격적인 것들이다. 비중과 부담도 커진다.

이 책은 막 중학생이 된 소년 '미츠'를 통해, 중학교 때부터 올바른 학습관과 공부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딱히 공부를 신경 써서 해 본 적이 없는 미츠는 점점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불안하다. 대비를 하려고 해도 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 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5월의 어느 날, 미츠는 학문의 신을 모셨다는 작은 신사를 찾아간다. 공부를 잘 하게 해달라고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미츠에게,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난다.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녀석은 없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있다."며 미츠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부터 공부천재인 사람은 없다고 지적한다.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신감이 붙어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 꿈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츠는 약 2주간 그 남자에게 공부의 기초를 배운다. 신사에 모신 '공부의 신'으로 추정되는 그는, 공부는 대체 무엇이고 중학생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수업을 듣는 방법은 물론, 시험에 대비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도 과목 별로 소개한다. 수학은 계산·함수·도형이 기본이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이하며 연습하고, 영어는 어휘와 문법으로 탄탄한 기초를 다져놔야 한다. 사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원인을 같이 이해하여 암기하는 것이 비결이며, 국어는 글의 작문 방식과 구조를 알면 독해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미츠는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소년으로 한층 성장한다.

'평범한 소년과 공부의 신의 만남'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바람직한 공부 자세와 방법을 전한

다. 말 그대로 공부의 참고서다. 각 에피소드 끝에는 핵심 내용을 요약한 '공부의 철칙' 코너가 있기에 한 번 더 살펴보며 정리할 수 있다. 시험이라는 제도를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소개>

- 5/4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다, 라고 들은 날
- 5/5 정기 시험을 대비해 공부하는 것이 급소임을 알게 된 날
- 5/6 수업을 제대로 듣는 방법을 배운 날
- 5/7 성적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도 오르는 것임을 알게 된 날
- 5/8 우선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들은 날
- 5/9 수학 성적은 센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날
- 5/10 영어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단어와 문법이라는 것을 배운 날
- 5/11 「하면 된다」가 최강의 학습 가치관임을 알게 된 날
- 5/12 이과는 도해가 중요하다고 알게 된 날
- 5/13 동아리 활동을 하면 공부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게 된 날
- 5/14 사회는 이유와 같이 외우는 것이 비결임을 배운 날
- 5/15 국어는 글의 작문 방식을 이해하면 읽기 쉬워진다고 알게 된 날
- 5/16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면 된다, 고 들은 날

<저자소개>

후나토 요시아키(글)

1987년 니가타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이학부 화학과를 졸업하였다. 동 대학원 이과계 연구과 화학전공을 중퇴하고 '주식회사 DeNA'에 입사하였다가 독립하였다. 도쿄대학에는 독학으로 합격하였으며, 재학 시절부터 참고서를 집필하기 시작해 베스트셀러 학습참고서인 『우주에서 제일 알기 쉬운 고교 화학』시리즈를 비롯해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 방법을 알 수 있다 - 고교 첫 번째 참고서』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유아 및 일반 독자 대상 서적도 집필 중이다.

usi(일러스트)

시즈오카 현 출신, 서적 삽화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다. 그래픽디자인과 web디자인도 맡고 있다. 일러스트를 담당한 서적은 『5분 후에 의외의 결말』시리즈, 『주말이 다가온다!』,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 방법을 알 수 있다 - 고교 첫 번째 참고서』 등이 있다.

No.20170329-010

제목: 최악이야!

저자: 하나다 하토코(글), 후지와라 히로코(그림)

페이지수: 79

장르: 아동 소설

출간일: 2017년 02월 18일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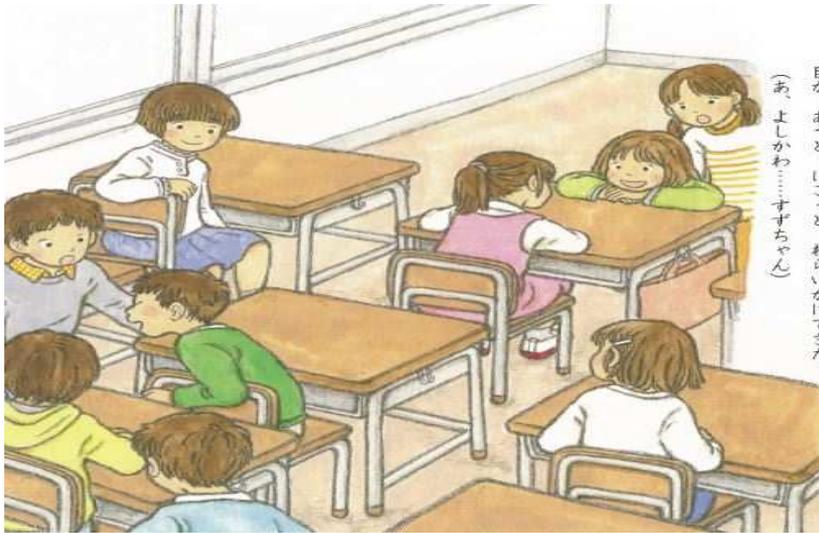
아이들이 한 번씩은 겪었을 '새 학년 친구 사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에는 항상 설레고 긴장됩니다. 방학을 마치고 오랜 만에 아이들을 만나면 반가우면서도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어 약간 어색합니다. 학년에 바뀌면 학급도 바뀌게 되고, 1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갈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귄 수 있을지, 작년에 친하던 아이들과 계속 가깝게 지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자라납니다.

봄방학이 끝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소녀 '나츠미'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일들만 연이어 생깁니다. 2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미키와 같은 반이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담임은 무섭기로 소문난 구마다 선생님입니다. 나츠미와 미키는 방과 후에 같이 놀자고 약속한 다음 각자의 반으로 돌아갔는데, 미키는 유카라는 새 친구와 같이 피아노 연습을 하기로 했다며 나츠미를 남겨두고 가 버립니다. 하루 내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겪은 나츠미는 '최악이야!'라고 생각하며 홀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후 미키와는 잘 놀지 않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피하게 됩니다. 나츠미는 항상 미키와 붙어 지내며 어디든 함께 다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언제나 같이 있지 않으면 친구가 아닌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만난 같은 반 친구 '스즈'는 자기 집에서 같이 놀자며 나츠미를 초대합니다. 나츠미는 초록색 풀을 양 팔에 가득 들고 걸어가는 스즈의 모습에 내심 놀라며 얼떨결에 따라갑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스즈의 집에는 귀엽고 부드러운 개와 토끼가 있었습니다. 나츠미는 스즈와 같이 개와 토끼에게 먹이를 주고 놀면서 친해집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구마다 선생님은 엄하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을 거리낌 없이 대해주는 분이었고, 미키가 좀 이상한 아이라고 말했던 스즈는 막상 겪어보니 밝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나츠미는 엄마와 친구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면서 예전처럼 밝은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학년과 반이 바뀌면서 제일 친하던 친구와 갑자기 멀어지고, 그 친구에게 새로운 단짝이 생기면서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은 정말 최악일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경험이지만 나츠미처럼 친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熊田先生が教室をでていくと、すぐ二年のときに同じクラスだった子どろしが集まった。あたしはもう一度、まわりを見まわした。窓ぎわのれつのいちばんまえの席の女の子が、あたしと目があうと、にこっとわらいかけてきた。
 (あ、よしかわ……すずちゃん)



「ほそい、わき道を右に曲がってしばらく行くと、目のまえがぱっと開けた。そこにたくさんのカラムシがもりあがるように生えていた。」
 「ここがあたしの「ひみつの場所」」
 「わあ、きれい!」
 「ねっ、きれいでしょ?」
 あたしはうなずいた。

<저자소개>

하나다 하토코(글)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났다. 일본아동문학자협회 회원, 야마시타 하루오 씨에게 사사하였으며 주요 작품으로 《필통 속의 공룡》, 《잠깐 타임슬립》 등이 있다.

후지와라 히로코(그림)

나라 현 출신, 무사시노미술대학 조형학부 시각전달디자인학과를 졸업하였다. 삽화를 그린 주요 작품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글쓰기 레슨>시리즈, 《미아가 된 아로, 집에 돌아가다》 등이 있다.